

사천N

SACHEON MAGAZINE

2020. 7월 (통권291호)



공원에 버려진 자전거

문진섭

공원에 버려진 자전거에서 맥박이 뛰고 있다
모든 버려진 것들은 저마다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멈춘 바퀴살 속으로 얼굴 없는 얼굴이 지나 간다
지금까지 지나온 얼굴들을 한 움큼씩 거머쥐고
얼굴은 보험 회사로 향해 걸어간다

아직 생명이 남아 있으므로
낯선 과거의 사람을 찾아가서 죽어서야 타 먹는
종신형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술을 마신다

휘청 거린다

누군가는 이곳 공원까지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서 왔을 것이다
함께 뛰어 놀았던 즐거움이 살았던 얼굴

자전거는 완강한 아래턱이 빠져 있다
욕망의 대용물처럼
공원 속으로 들어와 폐허가 되어 버렸다

정교한 슬픔이다



문진섭

- 박재삼문학선양회 회원
- 그림내시낭송회 회장
- 박재삼문학관 근무





06



18



20



29

CONTENTS

VISION

04

- 04 특집 - 민선6기 4년과 민선7기 2년, 사천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 06 기획 - 남일대해수욕장
- 08 시정소식 - 읍면동 소식
- 09 의회소식 - 의정활동
- 박종권 부의장

STORY

12

- 12 사람&단체 - 권택현 사천시체육회장
- 백연화 한국생활개선 사천시 연합회장
- 16 마시뜨라 - 삼천포중앙시장 맛집투어 1탄
- 18 동네한바퀴 - 무지개 해안도로
- 20 소개합니다 -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 음악분수대
- 22 사천의 보물 - 세종대왕태실지와 단종태실지 ❶
- 24 연재코너 - 우리 문화유산 둘러보기: 사락정
- 어때요? 항공산업 21탄
- 길이름따라 떠나는 사천이야기: 한월길
- 사천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계지술사

WITH

31

- 31 생활정보 - 시정 알림마당
- 33 문화 - 문화예술 알림
- 34 건강 - 의학상식: 만성 어깨통증 “오십견”
- 35 독자마당- 감사합니다.
- 36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민선6기 4년과 민선7기 2년, 사천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해양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다.

아울러 바다와 육상, 하늘길이 연결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는 우리나라를 항공산업 G7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첨병도시다.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6기는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지표 구현과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의 기반을 다지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특히 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성공적인 개통으로 해양관광도시 기반 마련,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대형 국가 공모사업 선정·추진으로 활력있는 도시 건설,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사천의 미래 50년을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사천시는 풍요로운 사

천, 미래가 있는 사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도시 사천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6년의 시정성과를 평가해주신 만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세계적인 명품 바다케이블카를 만든 것처럼 앞으로도 사천의 미래를 위해 뛰겠다”고 약속했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집적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KAI의 항공MRO사업자 지정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여기에 차세대 중형위성조립공장을 포함한 KAI우주센터 유치,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 종포일반산업단지 준공,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추진 등 항공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시애틀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우주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천에어쇼는 민·관·군 합동의 다이나믹한 에어쇼와 함께 획기적이고 다양한 항공관련 프로그램 도입으로 전국적인 볼거리로 부상했으며, 에어로마트 사천은 국내·외 70여개 항공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등 새로운 판로개척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위성분야 집적화와 함께 항공산업에 이어 우주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송 시장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천시는 대외 인지도 향상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 대상(사천바다케이블카), 통합건강 증진사업 우수 등 각 분야에서 민선6기 4년과 민선7기 2년 등 모두 6년간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청렴도시 사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6년의 시정 가운데 가장 으뜸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일 것이다.

2018년 4월 개통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개통이후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을 유치해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또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계사업인 실안 자연휴양림 조성, 초양도 관광거점마을만들기 사업, 초양도 아쿠아리움 조성, 사천바다케

이블카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했다. 아울러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4개의 섬을 연결하는 무지개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천시 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했다.

앞으로 2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민선7기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사천의 미래를 준비 중이다.

열린시정으로 함께하는 ‘시민중심 명품도시’ 건설, 명실상부한 ‘세계적 우주항공 미래도시’ 건설,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 인재중심의 생동감 넘치는 ‘품격높은 교육도시’ 건설,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중심 생태도시’ 건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균형있는 상생도시’ 건설, 희망으로 미소짓는 ‘농·어업 선도도시’ 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천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6개 분야에 100대 공약을 선정,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개발계획을 견인하고 지속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시민행복 극대화를 꾀할 사천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사천시 중장기 미래 비전과 서부권 발전계획이 제시됨에 따라서 사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사천시의 역동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품도시 사천을 건설하겠다는 민선6기와 민선7기의 수장으로서의 의지다.

사천시는 “무한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의 곁에서 늘 힘이 되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 물결위에
넘실대는 하얀색 파도

남일대 해수욕장

사천시 유일한 해수욕장



남일대해수욕장은 맑고 깨끗한 바닷물,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모래, 울창한 숲으로 이뤄져 있어 무더운 여름철 가족·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푸른 물결 위에 하얀색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 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해수욕장에서 가족·연인끼리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쌓아보면 어떨까? 7월 10일부터 개장하는 남일대해수욕장에서 무더위를 날려보자.



남녘에서 가장 빼어난 절경... 전국 최고의 뷰 남일대

신라말 대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이 ‘남녘에서 가장 빼어난 절경’이라며 ‘남일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 맑고 푸른 바다와 해안의 백사장, 주변의 경치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알 수 있다. 반달형 해수욕장인 남일대해수욕장은 삼면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종 기암괴석과 빼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또, 관광객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관조명 설치 및 조정수 식재, 벽화 정비 등으로 밤바다 경치도 전국 최고의 뷰를 자랑하고 있다.

가족·연인들이 여름추억 만들기에

수심이 그렇게 깊은 바다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고 보통의 해수욕장과는 다르게 모래가 너무 부드러워서 어린 아이들이 다칠 염려도 전혀 없다. 또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는 에코라인을 비롯해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가족들의 추억 만들기에 안성맞춤.

편의시설 완비, 코로나19도 걱정 없어

피서철 계획의 가장 큰 걱정거리·고민거리인 식수대, 화장실, 샤워실까지 모두 갖추고 있고 넓디 넓은 주차장은 무료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사천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 구성·운영으로 전 세계를 ‘멘붕’에 빠뜨린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소는 시설물 방역 실시, 사천소방서는 구급차 활용 환자 이송, 상가·번영회는 1일 2회 상가 대여용품 소독을 진행하고, 보건소와 향촌동행정복지센터·해양수산과 등이 자체적으로 추가 방역에 나선다고 하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피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SACHEON NEWS

음면동 소식

위기청소년 위한 밀반찬서비스 운영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6월 16일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하는 밀반찬서비스를 진행했다. 재단 소재의 쿡방에서 진행된 금차 밀반찬서비스는 위기청소년 24가정 지원이 이뤄졌으며, 조리된 밀반찬 3종류 외에도 두고 먹을 수 있는 식품도 함께 구성해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2020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선정



사천시어린이도서관은 죽림동에 소재한 하늘바라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총 15회 걸쳐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한 '2020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사업에 선정된 사천시어린이도서관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도서 지원, 도서관 활용법 및 책 읽어주기, 독서문화체험활동, 그림책을 활용한 연극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자연보호동서동협의회,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



자연보호동서동협의회(회장 지춘기)는 6월 10일 동서동 소재 녹도 일원에서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서동 조직단체 및 주민 100여 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고 깨끗한 섬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지춘기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교감하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주천년교 전면 개통



사천의 사주 승격 1000년을 기념하고 사천시가 새천년의 도약을 염원하는 사주천년교의 전 구간을 지난 6월 1일 전면 개통했다. 올해 1월 21일 반룡교차로에서 사주천년교 본선(교량)부까지 총 연장 664m 개통 이후 사천강변 접속도로가 완료됨에 따라 2016년 3월 착공 이래 4년 만에 전 구간 사업이 완료됐다.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 투어 실시



사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유치 관광설명회 및 현장 체험 등을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팸 투어를 가졌다. 이번 팸 투어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여행사 관계자, 철도 전문 여행사 대표, 블로거 등 31명을 대상으로 사천시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사천시 먹거리 소개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되었다.

삼천포로타리클럽, 와룡아파트 방수공사 자재 지원



국제로타리3590지구 삼천포로타리클럽(회장 이명진)은 지난 6월 6일 발용동 소재 와룡아파트 앞에서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게 건물 옥상 방수를 위한 300만 원 상당의 방수 페인트 등 공사자재를 전달했다. 이명진 회장은 "소외된 계층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매년 재능기부를 병행하여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CHEON NEWS

의회 소식

의정활동 - 5분 자유발언

**김행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치방을 위해서는 진단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등의 소득저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특정기간 동안 얼마나 소득이 감소했는지에 대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가능성을 줄이고 적합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배달앱 구축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스루와 배달업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달앱 시장은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높은 수수료로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침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유연한 주차대책이 필요합니다. 차량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속이 필요하겠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유연한 주차단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감면도 필요합니다.

**김규현 의원(미래통합당, 축동·곤양·곤명·서포)**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단속 카메라에 대한 가로변 안내 표지판을 통일성 있게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의 가로변 표지판 설치 상태를 보면 위치에 따라 하양, 노랑, 빨강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 글자 크기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방법용 CCTV,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등 다양한 CCTV가 도로에 줄을 지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도 대부분 비슷한 모양이어서 어떤 것이 무엇을 단속하고 있는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어느 곳에서든 한 눈에 인식될 수 있도록 가로변 안내 표지판의 색과 모양, 글씨 크기까지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안내 표지판에는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위반이 되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운전자에게 더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안내표지판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단속구역의 시작, 중간, 끝에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이것은 권고일 뿐 표지판을 50M 간격으로 더 많이 배치한다면 운전자가 인식하기 쉬울 것이고 이로써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관내의 모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 안내표지판을 통일성 있게 제작하고,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더 많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안 승인안을 비롯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의회 의견 청취,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등을 다뤘다.

시의회는 4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으로 시청 주요 부서별 시정시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건설항공위원회는 항공MRO 용당일반산단과 서부일반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행정관광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국도비 반납 내역 등 주요 사업시책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점검했다.

뜨거운 열정으로 사천 발전위해 매진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며 의회 활동에 최선"

박종권

사천시의회 부의장

2002년 당시 만 40세 젊은 나이에 사천시의원이 된 한 남성이 있다.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청년들의 지도 역량개발, 지역사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청년회의소(JC) 활동을 하다가 지방자치제가 생기자 출마를 결정했다. 이후 4대, 6대, 7대 그리고 지금의 8대까지 사천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권(58) 사천시의회 부의장. 그를 만나 왜 그가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는지, 또한 사천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보았다.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는 시의원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가 곤욕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기업,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내렸고, 정부에서는 3차 추경 등의 재정정책이 이슈를 끌고 있다. 사천시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이런 위기일수록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박종권 부의장은 말한다. 박종권 부의장을 만나러 간 날에도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일수록 예산이 선심성 사업에 쓰이는지, 불분명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지를 분명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감시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고, 시의원인 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다선 의원의 꿈과 미래

그의 꿈은 사천시의 올바른 발전에 있다. 일차적으로 시의회 의장이 되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다수당이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전·후반기 모두 같은 당이 의장이 되는 것은 사천시가 유일합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시켜도, 예결위에서 되살려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의회와 행정은 온전히 분리시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의회 의장으로 일한 뒤에는 언젠가 도의원으로

서도 일하고 싶다는 속마음도 보였다. 사천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 행정을 보면서, 우리 사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취미생활 중에도 생각나는 우리 지역 사천

박 부의장은 자전거를 즐겨 탄다. 언젠가 임진강에서 삼천포까지 자전거를 타고 4박 5일간의 여행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시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를 전했다.

“전국 시·군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천과 주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주변을 꾸준히 지켜봐 온 결과 우리 사천시보다도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하천 주변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천시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삼천포라는 바다 환경을 조금 더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삼천포 지역의 발전에도 많은 고민이 묻어났다.

그를 일하게 하는 사람들

초선이던 4대 시의원 당선 이후 5대 시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당시에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지만 주변의 응원과 도움으로 역경을 이겨내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아마 지금처럼 변함없이 지역민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보인다면 시민들에게도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의 발걸음에 힘찬 응원의 목소리를 전한다.

건전 재정 위한 수익 창출 앞장서며 사천시 위상에 맞는 체육회 만들 것

권택현

사천시체육회 제11대 회장

권택현(62)사천시체육회 제11대 회장. 사천시체육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은 채 초대 민선체육회장에 올랐다. 체육회장이란 자리는 지금껏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자리였다. 그러다 권 회장이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중책을 맡게 되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상생

권 회장은 사천 출신이 아니다. 산청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부터 부산에서 자랐고, 이후 대기업에 취업해 평범한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에 자신만의 일을 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지

금의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천시체육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에 올랐을까. 그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과 특히 송도근 시장과의 소중한 인연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말했다.

초대 민선회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권 회장은 사천시체육회를 위해 할일이 많다고 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상생 발전하는 민선 체육회를 만들어야 하고, 특히 행정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항공우주도시 사천시의 위상에 걸 맞는 체육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또한 유소년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공간을 마련하고, 모든 체육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체육인의 전당' 설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누구나 참여하는 자율개방형 체육회

권 회장은 사천시체육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는 “생활체육은 경남도 각 시군의 경제수준과 인구 측면으로 보면 중상수준이며 특히 열악한 주변 여건 속에서 행정적 지원은 타 시군과 비교하면 우수한 실정”이라며 “엘리트체육인 유도와 농구는 지난해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갈수록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는 선수 선발자원이 없는 데다 인구감소까지 맞물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실이 이러하니 임기동안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했다. 사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자율개방형 체육회를 만들어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시설부서와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운동시설을 새로이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투자 가능한 재원확보 노력

권 회장은 “무엇보다 투자 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선 시 재정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출현하고, 체육회가 소득

을 창출하도록 건강세미나, 건강지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맞춤형 운동을 강습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체육인의 전당 건립을 통해 대여 및 임대 수입, 직접 체육회가 운영 가능한 시설 건립을 사천시 재정여건에 맞도록 추진하는 법인화 전환 및 수익사업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생각의 전환 필요”

사천시체육회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권 회장은 “관선에서 민선으로 체육회가 변경되면 체육인이 자유로운 반면에 책임의식이 더 많이 요구되는 현실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한 뒤 “민간인 체육회장체제가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만, 문제해결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체육회는 너무 관료적인 부분이 많고 자율성이 부족하다. 직원들의 의식도 능동적 자세를 키워야 한다”며 “체육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인 만큼 건전 재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창출이 우선돼야 한다. 시 예산의 일정부분을 체육회로 전환하는 방법, 스포츠복권사업 수익을 대한체육회를 통해 직접 받는 방법, 시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사용료 및 대관비를 받는 방법 등 다양성을 열어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초대 민선회장이란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사천시체육회가 전국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그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데 모든 것을 걸겠다”는 권택현 회장. 그의 두 어깨에 사천시체육회 산하 정식 종목 40개, 준회원 종목 7개의 미래가 달려있다.

“웃는 사천이 잘 사는 사천입니다.”

여기 예쁜 미소가 가득한 한 여성이 있다. 농촌 여성들을 위해 즐겁게 일하는 한국생활개선 사천시연합회 백연화(58) 회장이다.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 여성 권익증진에 무엇이 필요할까? 백연화 회장은 항공사와 호텔에서 화려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질병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다시 농촌으로 내려와 귀향 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그녀에게 한국생활개선 사천시연합회가 손을 내밀었고, 올해로 34년째이다. 그녀가 말하는 ‘웃는 사천, 잘 사는 사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백연화

한국생활개선 사천시연합회장

♥ 농촌 여성들의 문화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체

한국 생활개선 연합회는 1958년 생활개선 구락부로 출발하여 건전한 농촌 가정 육성과 농촌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가꾸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중에서도 한국 생활개선 사천시연합회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꽃꽂이와 염색 등의 실생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사물놀이, 하모니카 등의 문화 교육까지 그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이 모든 비용의 대부분을 자체 기금과 사업으로 해내는 놀라운 단체이다. “제가 회원들에게 가장 더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문화 교육입니다. 이 문화 교육을 통해 취미 동아리들이 생기고, 동아리 활동들을 하며 회원들 간의 단합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자체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자생단체

과연 예산 문제는 없을까? 분명 기존의 사업들에 더해서 하모니카나 사물놀이의 악기들을 구매하는 재원과 이를 교육하는 강사료까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백연화 회장은 자체 기금으로 대부분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농업한마당 축제 같은 큰 행사에서 2박 3일 동안 식당을 운영하여 생기는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남은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일손 돕기 프로그램이다. 회원들의 농가에는 과수 농가들이 많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 농가에는 일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회원이 300명이나 되는 한국생활개선 사천시연합회 인력은 정말 귀하다. 게다가 농촌 출신의 베테랑 인력들이기에 일의 속도가 무척이나 빠르다. 회원의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농가에도 회원들이 농가에 일손을 도우며, 소액의 보수를 받는 것이다.

셋째는, 자체 농산물이나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다. 회원들의 귀한 농장에서 나오는 좋은 농산물이나 상품들을 판매하며 농가에 소득을 더하고, 일부 이익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금 조성 프로그램의 강점은 무엇일까? 바로 지역 농촌의 구성원들과 한국생활개선 사천시연합회가 서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며,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생활개선 사천시연합회는 지자

체나 기관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조만을 받아도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회원들의 참여도는 어떨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기뻐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라도 도와주자’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니 제가 저희 회원들을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 행복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한국생활개선 사천시연합회를 한 마디로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백연화 회장은 사천 생활개선연합회에 34년간 몸담아왔고, 총무 4년, 감사 2년, 부회장을 2년간 해왔다. 그리고 올해를 끝으로 회장 임기가 만기 된다. 지금의 운영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회원들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다른 그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냐고 물어보니 그녀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녀의 이름처럼 향기로웠다.

“저희 회원들을 한 명씩 다 안아주고 싶어요. 원래도 제가 큰 행사가 끝나면 문밖에서 우리 회원들 한 분씩 다 안아드렸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루빨리 저희 회원분들을 보고 싶어요.”



옛날 팔칼국수집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에서 보시면 《옛날 팔칼국수집》이 보입니다. 비빔밥은 4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색 나물 가득하고 깨소금도 듬뿍~ 뿌려주십니다. 툇 장아찌와 갓 담은 김치도 맛있어요. 하지만 비빔밥의 고추장 맛이 정말 좋습니다. 함께하는 달달한 팔칼국수~ 여기는 밥알이 없는 초록 면이에요. 울 엄마도 저도 좋아하지요.



추억과 인심과 정이 넘치는 중앙시장 곳곳에 숨겨진 맛집 투어 하러 가요!

방문 구매하시면 1시간 주차 무료이니, 꼭 챙기시고 전통시장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삼천포 팥빙수



디저트도 중앙시장에서 해결해 볼까요? 제가 즐기는 메뉴는 팥빙수&찐빵&커피♡ 국내산 팥으로 만든 팥빙수입니다. 우유 빙수라 시원하고 맛있어요. 딱 기본적인 깔끔한 맛입니다. 팥빙수랑 찐빵 각각 가격이 커피 한 잔 가격 정도예요! 카~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커피는 2000원! 팥빙수는 3800원! 가성비 최고죠?

교동 불 떡볶이



주차장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좌측 입구에 보시면 《교동 불 떡볶이》가 있습니다. 삼천포에서 튀김이 제일 맛있는 곳! 튀김옷이 정말 바삭바삭하거든요. 고구마튀김과 김말이 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김말이 튀김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매콤한 떡볶이 양념에 찍어 먹으면 느끼함도 잡으면서 매콤함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삼천포 중앙시장의 유래를 찾아보니 그 중심에는 '갈대샘'이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갈대샘에 빨래를 하기 위해서 웅기종기 모인 아낙네들이 각종 농산물과 수산물을 교환하다가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옛날 샘모습은 아니지만 그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엄마 따라 중앙시장 가는 날은 항상 즐거웠던 거 같아요. 그 추억을 찾아 삼천포 중앙시장 맛집 투어 떠나 보실까요?^^



송미선
제5기 사천시 SNS서포터즈



정든식당

추억의 옷가게인 남양상회 옆에 장 백반집 《정든 식당》이 있습니다. 집 반찬에 꼭꼭~ 눌러 담은 밥에 주인장님의 인심이 느껴집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어요. 배달 가시는 모습도 추억 돋네요. 오잉? 메뉴판 옆에 조그만 사진이 보이길래 자세히 보니 송대관 씨가 다녀가셨네요! 2년 전쯤 사천시 행사 오셔서 소개로 정든 식당을 방문하셨다고 하시네요^^

동해 칼국수



가격 대비 양도 푸짐한 《동해 칼국수》은 여전히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가성비 갑! 칼국숫집! 제가 즐겨먹는 메뉴는 돌솥비빔밥&해물칼국수&새알 미역 들깨죽입니다. 사천시 칼국수 가게들의 공통점은 김치가 다 맛있어요. 재료가 좋으니 맛도 다 좋아서 어디를 가도 손님들이 많아요.

※ 사천시 SNS서포터즈가 작성한 글이며 사천시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천만 해안도로가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 빛깔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용현면 송지에서 대포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무지개빛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사천시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해안도로 3.081km 구간에 있는 방호벽을 무지개빛으로 도색했습니다. 사천만을 따라 조성된 이순신 바닷길 2코스에 위치한 방호벽이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해안도로로 재탄생하면서 '사진 찍기 좋은 핫한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카메라를 들고 인생 샷을 남기잖아요. 바로 이곳이 찍기만 해도 그림이 되는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일곱빛깔 무지개를 찾으러 무지개해안도로로 떠나볼까요. 무지개 길이라서 무지개 우산을 들고 가는 센스~.

용현면 장송 마을의 당간 마당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바다를 따라 알록달록 무지개빛을 보고 있으니 어릴 적 무지개 잡으러 뛰어가던 동심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이곳은 해안 길 따라 걸어도 좋고, 드라이브를 해도 좋고, 자전거를 타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한 바퀴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도로변에 피어있는 양귀비도 무지개색이랑 잘 어울려 이쁩니다. 사진 찍고 걷다 보니 금문 소공원(내비게이션 부산 교갯벌탐방로)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갯벌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갯벌탐방로가 있고 입구에는 골든벨 하트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 사진 찍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하트 존에 있는 딸기와 토마토는 용현 명품 특산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에 조명이 들어와 반짝반짝해요. 서쪽하늘로 지는 노을과 어우러져 멋진 사천 밤바다가 됩니다.

금문 소공원에서 조금 더 가면 방파제가 나옵니다. 이곳 역시 일몰 맛집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쉬어가기도 합니다.

인근에 있는 거북선 체험마을에는 돌을 쌓아 만든 돌탑과 사천대교, 사천만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곳이지요. 갯벌 신청을 하면 체험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쑥 잡이가 제철입니다.



이순영
제5기 사천시 SNS서포터즈



※ 사천시 SNS서포터즈가 작성한 글이며 사천시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동면행정복지센터가 현대적인 깔끔한 모습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정동면행정복지센터 옛 청사는 건물이 오래되고 비좁아 정동면민을 비롯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았다. 특히, 기존 2층 대회의실은 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여가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천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와 여가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건물 신축에 31억 원, 주차장 조성에 7억 원을 투입, 지난해 7월 청사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4월 22일 건물 준공을 완료한 뒤 6월 27일 정동면민과 내외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연면적 996.89㎡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은 민원실과 상담실, 소회의실, 면장실, 문서고 등으로 사용되며, 2층은 대회의실과 자치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으로 배치돼 있다.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음악분수대를 운영합니다.

여름을 맞아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음악분수대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2회(저녁 7시, 8시), 주말과 공휴일은 3회(저녁 7시, 8시, 9시) 운영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청소 및 시설물 점검관계로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수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합니다. 음악분수 공연시간은 30분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는 거북선이 첫 승리를 거둔 사천해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특히 바다와 어우러진 환상의 분수쇼를 감상할 수 있는 관광명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 사천바다케이블카, 수상무대, 거북선 조형물 등과 연계한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매년 외지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올 여름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종대왕태실지와 단종태실지 ①

사람은 잉태되어 출생 때까지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 태줄(胎)이라는 것을 통해 양분을 받고 노폐물을 내보내며 10달을 보내게 된다. 그만큼 태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이러한 태줄을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중요하게 여겨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땅에 묻어서 처리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장태(藏胎)문화라 한다. 장태와 관련하여 가장 오랜 된 기록은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 “김유신의 태를 높은 산에 묻고 태령산이라 불렀다”라는 내용으로, 오늘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운봉리 태령산에 있는 사적 제414호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이다.

고려시대에는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과거제에 지리업(地理業) 시험 과목으로 『태장경(胎藏經)』이 있었을 만큼 왕실에서도 장태를 매우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장태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잘 남아있고 보존되어 오는 것이 바로 조선왕실의 태실과 기록들이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미래 태어날 아기씨를 위해 전국 태실 후보지를 조사하여 모두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였다. 1등급은 원자와 원손, 2등급은 대군과 공주, 3등급은 왕자와 옹주의 태가 묻혔다. 이들 중 누군가 왕위에 오르면 전국 길지를 조사하여 태실산도(胎室山圖)를 그려 왕 운허를 받고 태실을 조성하였는데 이를 가봉(加封)태실이라고 한다.



김유신 태실
(문화재청 홈페이지)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전경(문화재청 홈페이지)

우리시에는 이러한 가봉태실이 2개가 있는데 바로 곤명면 은사리 소곡산에 있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30호 사천 세종대왕태실지와 제31호 단중태실지이다.

다음시간에는 태실을 조성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코자 한다.



우리 문화유산 둘러보기

사락정

사천읍 공설운동장에서 왼쪽으로 축동면 배춘리를 돌아 곧장 가면 두량농공단지 가 나오고 여기서 진주시 금곡면 방향으로 작은 고개를 넘어가면 두량 6리다. 본래 마을 이름은 '원두'마을인데 행정기관에서 '두량6리'라고 해 그렇게 부르고 있단다. 진주정씨 공대공파 후손 40여 가구가 살고있는 마을이다. 여기서 도로 맞은편의 두량저수지 방향으로 300여m를 가면 콘크리트로 지은 사락정(四樂亭)이 있다. 건물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이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가 길어 대어섯 칸짜리 한옥과 맞먹을 정도로 넓다. 7~8년 전에 3억 원가량 들여 지었다는 이 정자는 본채와 대문채 등 2개의 건물만 있다.

본채는 중앙이 넓은 마루로 돼 있고 정면에는 제사 때 위패를 모실 수 있도록 돼 있다. 건물 양쪽에는 방인데 왼쪽에는 현관이나 집안의 웃어른이 제사를 모시러 온 제관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고 오른쪽은 제사에 필요한 제기나 서책, 장부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갈이 깔린 마당은 2~300명이 동시에 절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넓다. 건물 중앙에는 사락정이라는 한자로 된 편액

이 걸려있다. 건물 크기에 비교해 너무 작은 크기여서 초라해 보였다. 글자도 한자로 쓰고는 한글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도록 돼 있어 어색했다. 연유를 물었더니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의 정자가 관리인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되다시피 했는데 그때 관리인의 아들이 만들어 걸었다고 한다. 대문채는 산양문(山陽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창고와 화장실이다. 산양문 앞 오른쪽에는 높이 1.5m 가량의 ‘진주정씨 공대공파 추모정’이라는 입석이 있다.



사락정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두량6리 마을 회관 앞에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사천향교 2대 전교(당시에는 직원으로 호칭)를 지낸 정재욱(鄭在煜) 씨가 집안의 사람을 설득해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은 폐가처럼 남아 있지만, 마을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이 됐다. 구조는 단층의 목조건축물로 정면 4칸에 측면 2칸에 맞배지붕 양식이다. 처음에는 기와를 얹었다가 몇 차례의 화재로 소실되고 지금은 기와 모형의 함석으로 지붕을 이었다. 중앙에는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양쪽에는 제관이 기거하거나 제기 등을 보관하는 방으로 활용했다. 입구의 대문간도 양쪽으로 방 두 개가 있어 창고로 사용했다.

원두마을은 진주정씨 8파 가운데 하나인 공대공파 후손이 400여 년간 대를 이어오는 곳이다. 공대공파는 고려말 통정대부로 추증된 휘(諱) 장(莊)을 시조로 하고 있다. 조선 정종 때 태어나 여섯

임금을 섬기면서 사헌부 감찰, 예조정랑, 호조·예조참판, 한성부윤, 수문전 대제학 등을 지낸 척(陟)과 성종 때 대마도에 사신으로 갔을 때 도주(島主)가 조선의 왕명을 문밖에까지 나와서 받지 않자 밖에서 호상에 걸터앉아 끝까지 버

티며 공경하게 받도록 했던 척의 아들 성근이 유명하다. 승무원 박사를 지낸 성근의 아들 사락공 정주신(鄭舟臣)도 벼슬길에 나섰다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임금과 다투다가 미움을 사 거제현령으로 내쳐졌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하고 진주의 비봉산 아래에 집을 짓고 터전을 잡았다. ‘들어오면 아버이를 봉양하고 자손을 가르치며, 나아가서는 농사를 지으며 고기잡이와 땔나무 하는 일로 즐거움을 삼겠다’라며 집 이름을 사락정이라 붙였다. 9세 희계(希契) 공이 북사동(北泗洞·사천의 북쪽)으로 옮겨 오면서 사천에 터전을 잡았고, 후손은 조상의 곧은 절개와 행의를 잊지 않기 위해 재실 이름을 사락정이라 했다.

후손 무양(78)씨는 “한때는 인근에 200여 가구 살았으나 모두 흩어져 이제는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마을로 전락했다”며 “그러나 조상님의 행적을 찾아 문집을 만들거나 기리는 일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겠다”라고 했다.



이완용
사천시 곤명면



어때요? 항공산업 21탄

관내 동향

● 사천시, 관내 항공부품업체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지속

- 사천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개정 후 관내 49개 항공업체의 5~7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 간 30% 감면키로 함
- 추가로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성금 모금액 7,580만 원으로 나머지 요금 70%를 지원하여 기업체는 수도요금 100% 감면효과 누림
- 시는 지난 3월부터 4차에 걸쳐 관내 항공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7개 분야(기업규제, 금융, 고용, 기업 지원 등) 12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음
- 접수된 건의사항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요청 및 잡목 제거 등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처리완료하고, 항공부품 감·인정 비용 지원, 법률 지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검토 중임

●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작전 재개

- 추락사고로 운항을 중지했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8일 해병대1항공대대에서 작전비행을 재개
- 해병대는 지난 2018년 7월 사고조사 결과 후속조치 완료 후 작전 재개를 위해 약 16개월간 4단계 비행 재개 훈련을 실시함
- 특히 사고 원인이었던 로터마스터는 국제품질보증과 제정과정의 열처리 오류방지, 비파괴검사 인원 증원 등으로 품질보증 시스템이 강화돼 마린온의 비행 안전성 및 신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

● 美 GE, KAI에 한국형 전투기 'KF-X' 엔진 인도

-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될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엔진 'F414-GE-400K' 엔진이 인도됨
- GE의 KF-X 엔진 공급은 지난 2016년 유로제트 'EJ200' 엔진과의 경쟁에서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이루어짐
- GE는 내년 말까지 F414-GE-400 엔진 15개를 시제기용으로 납품할 계획
- KF-X는 오는 2022년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오는 2026년 개발 완료할 예정

KF-X



- 최대속도 : 마하 1.81(시속 2천200km)
- 항속거리 : 2천900km
- 이륙중량 : 2만5600kg
- 최대추력 : 4만4000lb(파운드)
- 최대탑재량 : 7천700kg



도내 동향

● 김경수 경남지사, 위기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

- 경남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도내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기간산업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 김 지사 건의에 대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항공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함
- 김 지사는 지난달 18일 광주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를 건의하는 등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혜택이 있고, 기간산업업종으로 지정되면 기간산업안정 기금 지원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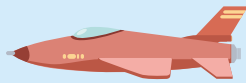
국내 동향

● 12월부터 새 항공기 도입시 정비능력 평가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는 항공사가 새 항공기 도입할 때 정비능력 평가
- 지금까지는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권고
-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옴
-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항공사와 의견수렴회의,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항공기 기종(대형기·소형기),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 중

● 머스크의 스페이스X, 한국군 통신위성 쏜다

- 지난달 최초의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7월 둘째 주,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케네디우주센터에서 한국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하기로 잠정 결정
- 아나시스 2호는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으로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한국



군은 최초의 군 전용위성을 보유하게 됨

-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록히드마틴社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택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한 절충교역*에 의해 제작됐으며, 록히드마틴은 그 뒤에 에어버스와 군 통신위성 제조를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에어버스는 자사 통신위성 '유로스타 E3000'을 기반으로 아나시스 2호를 제작

*절충교역: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 이전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

해외 동향

● 세계 항공업계 어닝쇼크...IATA "올해 적자 100조 넘을 듯"

-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항공업계가 올해 840억 달러(약 100조7,16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전망
- 여행 제한조치 등 영향으로 4월 항공승객은 지난 해 대비 94.3% 감소
- IATA, 2021년에도 세계 항공업계가 160억 달러(약 19조1840억 원) 적자 전망(빨라야 2022년에야 적자 해소)
- 현재 운항에 나서지 못한 채 서 있는 항공기는 전 세계적으로 약 1만4,000여 대이며,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은 올해 들어 600건 넘는 주문이 취소된 상태

● 프랑스, 에어프랑스-에어버스에 20조원 지원

- 프랑스 정부,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와 국영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등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3,200억 원)를 지원할 예정
 - 정부의 지원에는 6억 유로 상당의 급유 탱커와 드론 헬리콥터 주문 등 정부의 직접 투자와 보조금, 대출 보증 등이 포함
- 홍콩 정부, 홍콩 최대 항공사 캐세이퍼시픽 회생을 위해 '항공(Aviation) 2020'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 캐세이퍼시픽 지분의 6.08%에 해당하는 우선주 195억 HKD(3조520억 원)를 매입하고, 78억 HKD(1조 2,207억 원)를 단기 대출해주는 방안을 발표
- 독일 정부, 지난달 독일 국적의 유럽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에 90억 유로(약 12조1,79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
 -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 대출, 연방경제안정화기금(WSF) 지원 및 지분 20% 매입을 통한 부분 국유화 등이 골자

길 이름
따라
떠나는
사천
이야기

28번째 이야기 **한월(寒月)길**

사천시에는 많은 도로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도로명마다 역사적 의미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석문(石門) 동쪽에 있는 마을로 앞바다에 배를 띄우고 정박하게 하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큰 나무라는 뜻으로 한닐로 불리워지다가 한월(寒月)로 되었다고 한다. 또는 한 겨울 긴긴밤에 차가운 달이 바다에 비추인다 하여 한월이었다고도 하고 선달에 설을 쇠기 위하여 해안가에서 애써 장만한 해물을 곤양장에 내어다 팔기 위하여 차가운 겨울달을 보며 새벽같이 길따라 왔다가 설빔을 장만하여 저녁늦게 찬 달빛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간다는 서정적 애환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한월 사람들의 말이라 한다.

한월에서 넘어오는 월천고개는 지금도 밤바람이 차갑고 매섭다.

현 남해안 고속도로 터널이 2개 뚫려 있는 곳과 곤양중학교 근처를 턱으로 한월고개를 무장의 상투 끝으로 보면 누워있는 커다란 장군의 얼굴 형상이 된다.

옛날부터 여기에 징소리가 나면(즉 무당이 곳을 하면) 동네에 우환이 든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장군은 기가 세어서 무당의 잡곳을 싫어한다는데서 유래한 말인 것 같다.

※ 석문(石門) : 옛날 곤양군 동부면에 있던 마을로 현재는 곤양 대진리에 속함.

도로명은 이러한 역사성의 의미를 담아 **“한월길”**로 하였다.

사천 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계지술사(繼志述事)

“계지술사(繼志述事)”는 조상의 정신과 사업을 잘 계승한다는 뜻이다.

이 고사숙어의 출처는 《중용》 제19장이다. 원문에는, “무릇 효라는 것은 사람의 뜻을 잘 계승하며, 사람의 사업을 잘 이어 가는 것이다.[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라고 하였다.

이 글을 줄여서 “계지술사(繼志述事)”라 하고, 두 글자로 줄여 “계술(繼述)”이라고도 한다. 조상의 뜻과 사업을 이어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켜 서술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적인 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으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짧아도 100년의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런데 그 역사와 문화의 간직은 바로 “계지술사”에 있다.

사천시 곤명면 추천리에는 “봉남재(鳳南齋)”라는 재실이 있다. 추천리는 전주 이씨(李氏)들이 세거하고 있다.

조선시대 태조 대왕의 셋째아들 익안대군의 후손 중 이인복이라는 분이 경기도 포천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안의에 정착하였으나 영조 4년(1728)에 이인좌가 반역을 일으킨 무신란(戊申亂)을 피하여 이성기(李聖己)라는 분이 곤명면 추천리로 옮겨와 대대로 살게

되었다. 그 5대손 남재(南齋) 이형래(李馨來)라는 분은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 일에 모범이어서 당시 풍속을 새롭게 일으켰을 뿐 아니라 영재들을 교육하여 후세에 쓰일 인재를 양성하다가 생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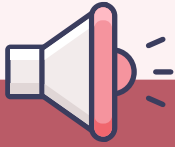
이러한 조상의 훌륭한 정신과 사업을 그 후손들이 다시 이어서 서술하기 위하여 남재공이 강화하던 곳에 봉남재를 건립하여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은 후손들의 독실한 뜻과 실천의 의지였다.

아울러 남재공에게 수학한 제자들도 협력하여 “계지술사”를 함께 하였으니 그 정신이 현재까지 남아 전하면서 지역의 풍속과 문화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봉남재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분은 이필구, 이용희 씨 등이었다. 봉남재라는 이름은 그곳 봉암산의 지명을 따라 그 남쪽에 있다는 뜻을 취하였다.



이 갑 규(李甲圭)
한국국학진흥원 교수·한학자



시정 알림 마당



뇌질환·특수질병 검진비용 지원

● 지원대상

사천시 거주하는 만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포함)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 건강보험료 하위 50%(’20년
1월 기준) : 직장 10만원, 지역
9만7천원 이하

● 검진항목

- 뇌질환 : 뇌MRI, MRA
- 특수질병 : 전립선, 난소암, 갑상선,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 검진기관 : 삼천포 서울병원,
삼천포 제일병원

● 뇌질환·특수질병 지원 문의:
사천시보건소 만성병관리팀
☎ 055)831-3553

암 검진 미리 받GO! 선물도 받GO! 건강도 챙기GO!

경남도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을 9월까지 받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이번 이벤트는 암검진 조기발견을 통한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과 동시에 암 검진 조기수검 인식 확산에 따른 연 말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미리미리 국가암검진 받으시고 디지털 체중계도 받아주세요.



- 대상자 : ‘20년 암검진 대상자인 경남도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9. 30.(수)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을 받으신 분
※ 개별 종합검진은 해당 안됨, 18년·19년 당첨자 제외
- 추첨 및 경품 : 총 250명 추첨, 건강용품(전자체중계) 제공
- 당첨자 발표 : 11월 24일(화) 예정, 당첨자 개별 문자 연락
- 경품 지급 : 당첨자 발표 후 2주일 이내 우편발송
※ 사천시 보건소는 국가암검진기관이 아닙니다.

2020년 국가암 무료검진

- 암 조기검진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



● 검진대상 :

짙수년생 출생자(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기준 하위 50% 납부자)

종류	검진연령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위내시경 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 + 혈액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대변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	2년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인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만 54~74세 남녀	2년	저선량 흉부 CT 검사

● 국가암검진 문의 : 사천시보건소 만성병관리팀 ☎ 055)831-3553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경남’ 참신한 자원봉사활동 공모 접수합니다!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경남도민의 자원봉사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경남」이라는 주제로 2020 경상남도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합니다.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와 경남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6~9월 집중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 찾아가는 자원봉사 미니박람회, 경상남도 자원봉사왕,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경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원봉사 축제입니다.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대축제 활동기간 동안 교육, 안전·방범·폭력예방 등 10개의 영역에서 참신한 자원봉사 활동을 1시간 이상 실시한 청소년 및 기관·단체에서는 활동내용을 작성하여 8월 3일부터 7일까지 사천시자원봉사센터에 메일(adrenix4@korea.kr)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자원봉사센터 ☎055)831-5792로 문의하면 됩니다.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20. 7. 1. ~ 7. 31.
- 과세대상 :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7.1.)현재 사업장 연면적
- 세율 :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2배 중과)
- 문의 : 사천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55)831-2892

2020 치매 어르신을 위한 함께해요 「오손도손실터」



- **실터가 뭐하는 곳일까요~?**
경증 치매 어르신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시는 어르신의 사회활동 및 인지기능 증진과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 **모집대상**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어르신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
- **프로그램**
직업치료, 운동교실, 미술교실, 음악교실, 원예교실 등
- **이용시간**
월 ~ 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09:00~12:00
- **이용장소**
사천시치매안심센터(벌리동), 사천읍보건지소(사천읍)
- **이용기간** : 기본 2개월 이용(연장가능)
- **이용정원** : 15명 이내(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주소 : 사천시 중앙로 212. (구)벌리동 104-1)
- **필요서류**
치매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치매코드약)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 치매안심센터 사천시보건소
☎ 055)831-5867, 5870
사천시 중앙로 212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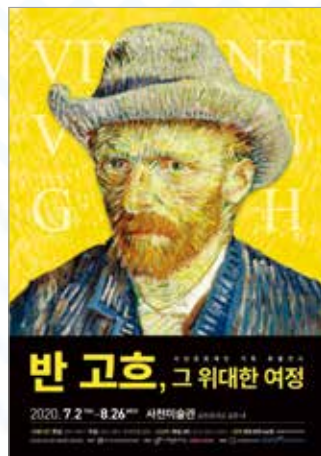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
- 주택분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7월 일시납부
- 문의 : 사천시 세무과 재산세팀
☎ 055)831-2866, 2870

7월, 문화·공연이야기



2020 사천문화재단 심화 강좌 인문학 살롱

일 시 : 7·8월 매주(화) 오후 9시 30분
 장 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공연프로그램 : 불멸의 이순신
 접수기간 : 6월 22일부터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전화 및 현장 접수
 접수 및 문의 : 055-835-6536



반 고흐, 그 위대한 여정

일 시 : 2020년 7월 2일 ~ 8월 26일
 장 소 : 사천미술관
 관람시간 : [평일] 10시~18시
 [주말] 10시~20시
 문 의 : 055-835-6435
 홈페이지 : www.sccf.or.kr





만성 어깨통증 “오십견”

일반적으로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질병은 수동적, 능동적 관절 운동의 제한이 있고 어깨 관절 부위에 결림증과 통증이 있으며, 계속 진행되면 관절이 굳어버리는 질환입니다. 대개 저절로 점차 증상이 소실될 수 있으나, 재발되기 쉬우며 심하면 관절 운동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인



임상적인 증상이 가장 중요하며 관절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40-60세 사이의 나이, 여자, 당뇨병, 갑상선 질환, 어깨관절의 병변이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합니다.

통증은 혈관과 근육의 경련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관절을 더 움직이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섬유화가 진행되며 관절의 구축이 오고 현저한 기능의 소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 증상

어깨결림이나 통증과 어깨관절의 운동제한이 있다가 점차 통증이 감소되면서 운동제한은 증가될 때 유착성 관절낭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즉, 급성기가 지나면 일단 통증은 호전되나 운동제한은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되고, 더 진행되어 관절이 구축되게 되면 모든 방향의 운동이 제한을 받으며, 특히 외전, 외회전 운동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치료

유착성 관절낭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급성기를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될 수도 있으나, 어느 정도의 운동 제한과 장애는 남기 마련이며, 섬유화가 진행되고 이차적인 관절염과 근육의 구축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변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 어깨관절을 움직여 전체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약물치료로는 급성기 통증과 근 경련이 심할 때,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제제, 근이완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는 수동적인 관절의 스트레칭 운동 시, 초음파 치료와 같은 심부 열치료를 시행한 후 관절운동을 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느 정도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면 양 손을 머리 뒤 쪽으로 깍지를 끼고 최대한 외전, 외회전시키는 운동을 하거나 손을 뺀채 귀 뒤에 달게 하는 등의 능동적 운동을 하여야 하고, 수동적 운동을 병행하여 관절운동의 전 범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실시합니다. 또한 관절낭의 유착이 심할 때에는 방사선 투시하에 관절낭에 조영제가 들어있는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관절낭을 팽창시키는 치료적인 관절 조영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삼천포서울병원 어깨관절 전문의
정형외과 김민규 부원장

코로나 대응에 고생하시는 사천시 위생공무원님들을 칭찬합니다.



지난 3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위생업소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도 4번 정도 방문했는데 오실 때마다, 업소소독, 개인위생, 출입자명부 작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비한 사항은 잘 지도 해주셔서 지금은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생공무원들이 업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업소에서 하루에 소독2번, 환기2번, 개인온도체크, 출입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가 자기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술을 마시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되지 않는데 행정에서 하라는 것이 많아 화가 났지요, 위생공무원은 그걸 안하면 서울시 유흥주점과 같이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순간 좀 기분은 나빴지만 장사를 하려면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공무원은 서식을 만들어 와서 소독방법과, 출입자명부 작성, 종업원명부작성 등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손님과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때마침 위생공무원이 있을 때 손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위생공무원이 먼저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고 코로나 예방 때문에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 손님들은 우리 사천은 청정지역인데 이름 적고 술 마시면 되지, 하면서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술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위생공무원들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적으라고 하면 좀 다텈이 있었을텐데, 제 고민을 해결해주시고 갔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영업을 하는데 위생공무원이 점검을 왔습니다. “오늘 공휴일인데도 일해요” 물어보니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은 주말도 공휴일도 없습니다. 업주들이 잘 지

켜 주셔야 손님들도 협조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점검은 계속됩니

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사천시 위생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

로 코로나가 지역사회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되지 않

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준수사항을 잘 지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류**



사천의 미래

소중한 아기탄생을 축하합니다

용현면

한선우 (20.5.21.)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고마워,
우리 선우,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다오.
사랑한다♥

아빠 한창호♥엄마 양진희

용현면

조서우 (20.5.28.)

사랑하는 우리 서우야,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길 바랄게.
서우엄마, 연우도 서우도
낳는다고 고생 많았고,
연우랑 서우랑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랑해♥

아빠 조재규♥엄마 윤미연



아기탄생을 축하하는 글을 보내주세요.
사천소식지에 게재 후, 개별 송부해드립니다.

- 대 상 : 사천 출생아 중 신청가구
- 내 용 : 아기에게 전하는 축하의 글
- 신청기간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아기 출생신고 시 또는 별도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인구정책팀(☎831-2195)

